

少陰人·少陽人篇의 表病·裏病에 대한 考察(表裏陰陽升降을 중심으로)

李義柱·宋一炳

요약

論者は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을 고찰하여 각각의 表病과 裏病의 概要를 살펴보고, 表裏陰陽升降을 중심으로 각 병증을 장부론의 前四海, 後四海, 臟, 腑 등과 연결하여 부위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病理的 轉變過程이 相對가 되는 병증을 상호비교하여 병증의 輕重을 나누고, 그것을 圖解하여 병증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結論을 요약할 수 있다.

1. 肺·脾·肝·腎은 頭腦·背脊·腰脊·膀胱과 같이 表氣를 형성하고, 胃脘·腸胃·小腸·大腸은 頤·臍·臍·腹과 같이 裏氣를 형성한다.

2. 表病은 少陰人에게 있어서 陽氣의 進退強弱에 따른 陽氣의 升降으로 表氣·裏氣를 포괄해서 나타나고, 少陽人에게 있어서 表氣의 陰氣下降으로 表氣·裏氣를 포괄해서 나타난다. 裏病은 少陰人에게 있어서 冷氣의 聚散輕重에 따른 陰氣의 下降으로 裏氣에 나타나고, 少陽人에게 있어서 大腸의 清陽上升으로 裏氣에 나타난다.

3. 表病에서 살펴 보면,

◆ 少陰人의 腎陽困熱, 下焦血證과 少陽人의 少陽傷風은 表氣(後四海)의 병으로 膀胱에서 升陽作用不利와 背脊에서 陰氣下降不利의 병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이 논문은 제2회 사상의학 국제학술대회 제출 논문임.

◆ 少陰人の 胃家實과 少陽人の 結胸病은 半表氣裏氣病(前四海)로 小腹에서 升陽作用不利와 臍에서 陰氣下降不利의 병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 少陰人の 亡陽病과 少陽人の 亡陰病은 裏氣→表氣, 表氣→裏氣으로 裏氣에서 表氣로 陽氣가 外遁하는 것과 表氣에서 裏氣로 陰氣가 內遁하는 병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 그외 少陰人の 大腸怕寒과 少陽人の 心下結胸은 表氣病으로 裏氣不和한 것으로 前四海部位에서 小腹硬滿과 心下(臍)結胸의 증상이 나타난다.

4. 裏病에서 살펴 보면,

◆ 少陰人の 裏病은 冷氣의 聚散輕重에 따른 裏氣의 陰氣下降을 나타내며 太陰證은 胃중에 溫氣는 유지하나 大腸에 冷氣가 凝聚된 것이고, 少陰病은 大腸의 冷氣가 胃중에 溫氣를 犯하여 太陰證에 비해 病증이 더욱 重하게 되는 것이다.

◆ 少陽人の 裏病은 大腸의 清陽上升에 따른 裏氣의 陽氣上升을 나타내며 頭面四肢에 陽氣 상승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면 火氣가 되어 耗陽하는 病증의 단계(예 : 上消)와 胃局에 陽氣 상승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는 病증의 단계(예 : 中消)와 大腸局에 陽氣上升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는 病증의 단계(예 : 下消,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가 있다. 上消와 中消는 裡陽의 上升에 虛損이 있더라도 表陰降氣가 온전하므로 輕하고,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는 表裏陰陽이 모두 虛損함으로써 下消보다 더욱 重證이 된다.

I. 緒論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역대의 의학적 이론을 재구성하여 四象人의 生理, 病理를 제시하였다.

특히 少陰人篇과 少陽人篇은 병증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 근거가 <東醫壽世保元>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병증을 비교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少陰人과 少陽人은 喜樂의 性情偏差가 脾黨(目, 背脊, 臆, 腸胃)과 腎黨(口, 膀胱, 小腹, 大腸)에 병변을 야기하여 水穀代謝의 出納過程이 不利함으로써 表病과 裏病이 생긴다. 東武 李濟馬는 少陰人과 少陽人病證에서 궁극적으로는 表裏陰陽升降을 통해 병리과정을 이해하고 또한 치료의 목적으로 삼았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을 表病에서 살펴 보면, 少陰人은 陽氣의 進退強弱을 강조하고 少陽人은 表氣의 陰氣下降을 강조하였다. 裏病에서 살펴 보면, 少陰人은 冷氣의 聚散輕重을 강조하고 少陽人은 大腸의 清陽之氣의 上升정도에 따라 병증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이에 論者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을 고찰하여 각각의 表病과 裏病의 概要를 살펴보고, 表裏

陰陽升降을 중심으로 각 병증을 臟腑論의 前四海, 後四海, 臟, 腑 등과 연결하여 부위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병리적 轉變過程이 相對가 되는 병증을 상호비교하여 병증의 輕重을 나누고, 그것을 圖解하여 병증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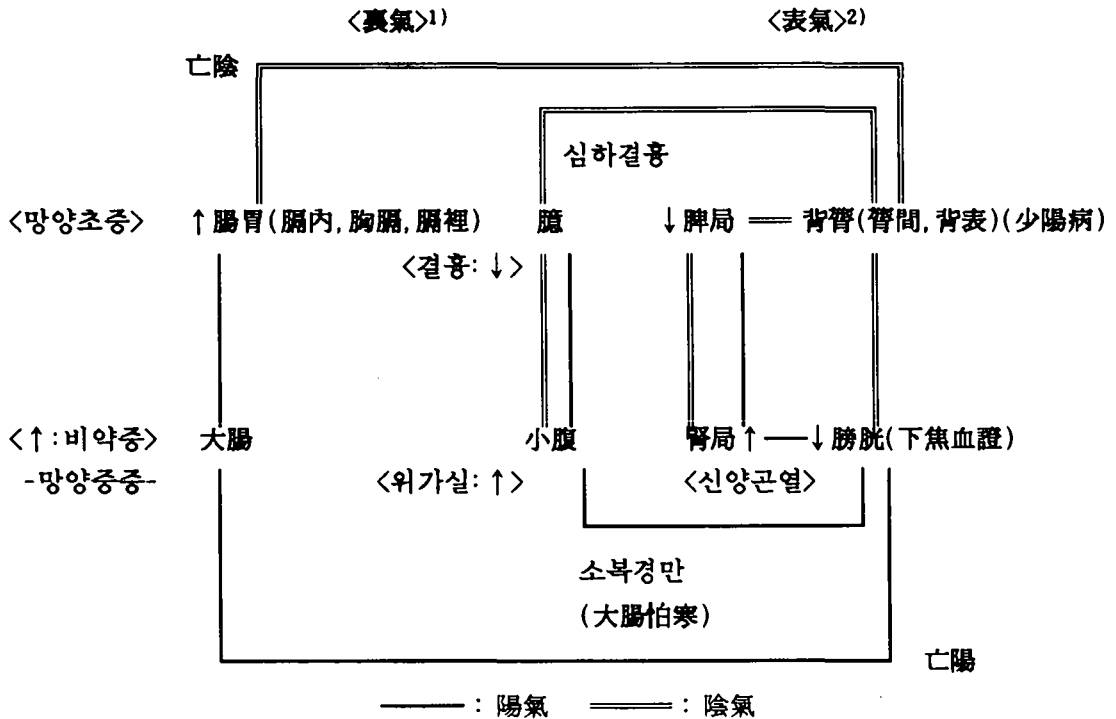
II. 研究方法

<東醫壽世保元>의 주로 少陰人篇과 少陽人篇의 原文을 인용하여 각 병증의 단계를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少陰人과 少陽人의 같은 병증의 단계를 陰陽升降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서술의 근거는 인용된 글에 번호를 부여하여 어깨번호로 표시하였다. (그림 1)은 少陰人·少陽人의 表裏病의 治療目標과 轉變段階(部位)를 나타낸다. (그림 2)은 少陰人·少陽人 表病의 陰陽升降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는 少陰人·少陽人 裏病의 陰陽升降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한글로 표시된 것은 논자가 유추하여 병증의 전변과정중 설정한 것이다.

III. 本論

		少 陰 人			轉 變 段 階 (部 位)	
表 病	陽氣之進退強弱	下焦血證	表陰下降	少陽傷風證	表氣(後四海)	膀胱 / 背脊
		大腸怕寒證		心下結胸證	表氣病 裡氣不和	小腹 / 臆
		胃家實		結胸證	半表氣裡氣(前四海)	小腹-大腸 / 臆-胃
		亡陽證		亡陰證	裡氣 → 表氣 / 表氣 → 裡氣	大腸 → 膀胱 / 背脊 → 腸胃
裡 病	冷氣之聚散輕重	太陰證	大腸之清陽上升	上消 中消 下消	裡氣	頭面四肢 - 腸胃 - 大腸
		少陰證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			

그림 1) 少陰人·少陽人의 表裏病의 治療目標과 轉變段階(部位)



(한글로 된 병증은 論者가 유추하여 병증의 전변과정중 설정한 것이다.)

그림 2) 少陰人 少陽人 表病의 陰陽升降圖

1. 少陰人·少陽人의 表病과 裏病의 概要

(1) 少陰人·少陽人의 表病의 概要

(少陰人表病論)

1)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少陽人表病論)

2) 太陽兩傷風寒 : 發熱 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 出而 煩躁者 卽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

少陰人은 風邪가 腎局에 침범하여 表氣(後四海

: 頭肩腰腎)에 熱의 형상을 발하여 腎受熱 表熱病¹⁾이라 칭하고, 少陽人은 風寒邪가 脾局에 침범하여 表氣에 寒의 형상을 발하여 脾受寒 表寒病²⁾이라고 한다.

少陰人에게 있어서 表病은 表氣와 裡氣에서 陽氣上升作用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表氣에서 나타나는 병증으로 腎局의 陽氣上升不利인 腎陽困熱, 膀胱의 陽氣上升不利인 下焦血證 등이 있고, 前四海에서 小腹의 陽氣上升不利인 胃家實 이 있으며, 裡氣에서 나타나는 병증으로 腸胃의 陽氣上升不利는 亡陽初證, 大腸에서 陽氣升降不利는 脾約證(亡陽中證), 裡氣에서 表氣로 外遁하는 亡陽末證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少陽人에 있어서 表病은 表氣와 裡氣에서 陰氣下降作用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즉 表氣에서 나타나는 병증으로 脾局의 陰氣下降不利하여 背脊의 陰氣下降不利한 것은 少陽病(少陽傷風)가 있고, 前四海에서 髓의 陰氣下降不利는 結胸證이 있으며, 表氣에서 裡氣인 腸胃로 內遁하는 亡陰證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2 참조).

(2) 少陰人·少陽人 裡病的 概要

(四端論)

- 3)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

(少陰人裡病論)

- 4) 少陰人 喜好不定而 計窮力屈則 心煩躁也
 少陰病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 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 喜好者 所欲也 何故 至於計窮力屈而 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心乎

- 5) 張仲景所論 太陰病 少陰病 俱是 少陰人 胃氣 虛弱 泄瀉之證而
 太陰病泄瀉 重證中 平證也 少陰病泄瀉 危證中 險證也
 人 但見泄瀉 同是一證而 易於尋常做圖 少陰病泄瀉 尋常做圖則 不免死
 皆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 6) 少陰病 有身體痛 骨節痛 表證 此則 表裏俱病而 大腸寒氣 必勝胃中溫氣而 上升也
 太陰病 無身體痛 骨節痛 表證 此則 裡病 表不病而 胃中溫氣 猶勝大腸寒氣而 下降也

(少陽人裡病論)

- 7)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而 陋固膠小 所見者 淺 所欲者 速 計策鶻突
 意思艱乏則 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生此病也
 胃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頭面四肢則 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胃局則 成中消病

(少陰人汎論)

- 8) 太陰少陰之自利形證:冷氣之聚散輕重

(少陽人裡病論)

- 9) 少陽人 大腸清陽 快足於胃 充盈於頭面四肢則 汗必不出也

(少陰人表病論)

- 10) 陰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 亡陽·少陰病 自初痛 已爲險證 繼而危證也

少陰人の 裡病은 樂性이 極하여 喜好不定함으로써³⁾ 裏氣에 범한 冷氣의 聚散輕重에 따라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大別된다⁸⁾. 나아가 喜好의 心慾이 不定하여 計窮力屈하면 少陰病을 형성한다⁴⁾. 太陰病은 裡氣인 大腸에 冷氣가 聚하였으나 腸胃의 溫氣에는 손상받지 않아 大腸의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여 생하는 병증으로⁵⁾ 輕證과 重證이 있고¹⁰⁾, 少陰病은 裡氣인 大腸의 冷氣가 腸胃의 溫氣

를 制壓하여 腸胃의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여 생하는 병증으로⁵⁶⁾ 險證과 危證이 있다¹⁰⁾.

少陽人의 裡病은 怒性이 極하여 悲哀動中함으로써³⁾ 寬遠闊達하지 못하고 陋固膠小하여 所見은 淺하고 所欲은 速하여 計策鶻突 意思艱乏함으로써⁷⁾ 大腸清陽이 胃로 나아가 頭面四肢로 上升하는 정도가 달리 나타나 병증이 구별된다⁷⁹⁾.(그림3 참고)

2. 少陰人·少陽人의 表病

(1) 下焦血證과 少陽傷風證(後四海病 : 表病), 大腸怕寒證과 心下結胸證(後四海-前四海病 : 表氣病裡氣不和)

(臟腑論)

1) 肺部位 在下背上 胃脘部位 在領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膈 胃部位 在膈 故 膈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 故 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 脊下臍下以下 謂之下焦

2) 胃與兩乳目背膈筋 皆脾之黨也

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少陰人表病論)

3)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4) 下焦血證 :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而腎局陽氣 爲寒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5) 少陽病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

寒熱之證 : 腎局陰氣 爲熱邪所陷而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 凝聚膏間 膠固囚滯之病也

(少陽人表病論)

6) 小腹硬滿 心下結胸 : 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裡氣亦秘滯不和而 變生此證也

(少陰人汎論)

7) 少陰人病 有六大證

一曰 少陰病 二曰 陽明 病 三曰 太陰病 陰毒證也 四曰 太陽病 厥陰證也 五曰 太陰病 黃疸證也 六曰 太陽病 胃家實證也

8) 少陰人病 10病 :

陽明 少陰 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也

厥陰 陰毒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

太陽 太陰之輕病 不用藥而 亦自愈也

太陽 太陰之尤病 已不可謂輕證而 用藥二三貼 亦自愈也

太陽 太陰之胃家實 黃疸 正邪壅滯之病 不可不大用藥也

少陰人 表病에서 脾局의 陽氣가 寒邪에 의해 掩抑되고 腎局의 陽氣가 寒邪에 의해 拒하여 비국에 直升하지 못하고 腎局에 鬱縮되는 것은 腎陽困熱¹²³⁾이라고 하고, 表氣인 膀胱에 鬱縮되는 것이 下焦血證(熱入血室, 熱結膀胱)¹²⁴⁾이라고 한다. 이때 表氣인 膀胱으로 陽氣가 鬱縮되면서 裏氣인 대장에 入하지 않고 前四海인 小腹에서 秘滯不和하여 硬滿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大腸怕寒證^{12,36)}이라고 한다.

少陽人 表病에서 腎局의 陰氣가 熱邪에 의해

上消 (不快足:鬱熱) 頭面四肢

中消

變證:癰疽,眼病

↑

腸胃(溫氣) 太陰少陰之自利形證:冷氣之聚散輕重

喜好不定而 計窮力屈

少陰證:健脾而降陰

少陰病泄瀉(胃中之泄瀉:冷氣逼迫溫氣之泄瀉)

臟厥(동의보감: 傷寒陽厥)

陰盛格陽

下消

↓ 大腸(冷氣)

太陰證:溫胃而降陰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

↓ 太陰病泄瀉(大腸之泄瀉:溫氣逐冷氣之泄瀉)

太陰病陰毒, 太陰病黃疸(陰黃)

心下痞滿, 寒實結胸 부종

—— : 陽氣 ===== : 陰氣

(한글로 된 병증은 論者가 유추하여 병증의 전변과정중 설정한 것이다.)

그림 3) 少陰人 少陽人 裡病의 陰陽升降圖

고 脾局의 陰氣가 熱邪에 의해 壅되어 신국에
하지 못하고 筋間에 癡聚되는 것이 少陽病(少
風)^{1,2,6)}이라고 한다. 이때 表氣인 背筋에 陰氣
聚聚되면서 裏氣인 胸膈에 入하지 않고 前四海
心下(臆)에서 秘澁不和하여 秘結한 증상이 나
는데 이것이 心下結胸證(小結胸)^{1,2,6)}을 형성한

腸怕寒證과 心下結胸證은 表氣의 陰陽虛弱에
裏氣의 秘澁不和를 형성한 變證으로 전사해
병변이 생긴다⁶⁾. 그리고 下焦血證과 少陽病
後四海에서, 大腸怕寒證과 心下結胸證은 前四
|서 병변을 말하는데 少陰人의 陽氣升降과 少
의 陰氣下降의 不利로 병증을 요약할 수 있
4,5,6)

|것은 表病증의 表病의 輕病 및 尤病에 해당

되어 不用藥 및 用藥2-3첩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7,8)}.

(2) 胃家實과 結胸 (前四海病: 半表氣裏氣病),
亡陽病(裏氣→表氣病)과 亡陰病(表氣→裏氣病)

(少陽人表病論)

9) 胃家實 結胸病 : 正邪陰陽 相敵而相格 故 日
久而後 危證始見也

亡陽病 亡陰病 : 正邪陰陽 不敵而相格 故 初
證 已爲險證 繼而 因爲危證矣

10) 亡陽者 陽 不上升而 反爲下降則 亡陽也

亡陰者 陰 不下降而 反爲上升則 亡陰也

陰盛格陽於上則 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而 外遁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

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 所謂內水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則 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而 內遁膈裡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 所謂內炭外水 陰將亡之兆也

11) 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遁則 煩熱而汗多也 此之謂 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遁則 畏寒而下多也 此之謂 亡陰病也

(少陰人裡病論)

12)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신양곤열 : 울광증 경중)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위 가실 : 울광증 중중)

陽明病 潮熱 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13) 陰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

亡陽·少陰病 自初痛 已爲險證 繼而危證也

(少陽人表病論)

14) 結胸 無非險證

A. 結胸病 重證

(小結胸) 當先用 甘遂 仍煎 荊防導赤散 以壓之

(水逆, 水結胸) 乾嘔 短氣而 藥不還吐者 不用 甘遂 但用 荊防導赤散 加白茯苓 澤瀉 各一錢 二三服 又連日服而 亦病愈

B. 結胸病 重證中 險證

(大結胸) 燥渴譫於者 尤極險證也 急用 甘遂 仍煎 地黃白虎湯 三四貼 以壓之 又

連日服 地黃白虎湯

胃家實은 表氣의 熱結膀胱이 傳變되어 前四海인 臆의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고 腹에 下陷하여 울결된 것으로 오래되면 裏氣인 大腸의 陽氣에 손상을 주어서 危證이 될 수 있고, 結胸病은 표氣의 少陽傷風病이 傳變되어 前四海인 腹에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고 臆에 上逆하여 울결된 것으로 오래되면 裏氣인 腸胃의 陰氣에 손상을 주어 危證이 될 수 있다^{4,5,6}. 이들은 正邪陰陽이 서로 相對가 되는 것으로 오래되면 危證이 되는 것이다⁹. 胃家實에는 鬱狂證 重證으로 裏氣의 秘澁不和 정도가 더욱 심하면 鬱狂末證으로 심화된다^{6,8,12,13}. 結胸中에는 小結胸, 水結胸은 裏氣가 輕하게 不和되는 重證과 大結胸과 같이 裏氣가 重하게 秘澁不和하는 重證中 險證의 차이가 있다^{12,13,14}.

亡陽病과 亡陰病은 正邪陰陽이 서로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初證이 이미 險證인 것으로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⁹. 亡陽病은 陽이 陰에 抑鬱되어 裏氣에서 胸膈에 上升하지 못하고 大腸에 下陷하여 敗陽이 表氣인 膀胱으로 外遁하여 陽이 亡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背表煩熱, 汗出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10,11}. 亡陰病은 陰이 陽에 壅하여 表氣에서 膀胱에 下降하지 못하고 背脊에 上逆하여 敗陰이 裏氣인 膈裡로 內遁하여 陰이 亡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腸胃畏寒, 泄下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10,11}.

(3) 胃家實과 脾約證 (鬱狂病과 亡陽病) : (前四海病과 裏氣病)

(少陰人裡病論)

14)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腎陽困熱 : 鬱狂證 輕證)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胃家實：鬱狂證 重證)

陽明病 潮熱狂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亡陽證 險證)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脾約證：亡陽證 危證)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15) 太陽病汗出 熱氣卻寒氣之汗出也

陽明病汗出 寒氣犯熱氣之汗出也

16) 太陽陽明之發熱形證：陽氣之進退強弱

17)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其病垂危則 澼然 微汗出 潮熱也

澼然 微汗出 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 汗自出 不惡寒而 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 惡寒也

發熱汗多而 惡寒者 裡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少陰人表病중 鬱狂病과 亡陽病은 表氣에서 寒邪의 振發之力과 裏氣에서 陽氣를 지탱하는 정도에 따라 初, 中, 末證으로 구분된다^{14,17)}. 즉 表氣, 裏氣에서 陽氣의 진퇴강약이 少陰人表病을 조절하는 關鍵이 되는 것이다¹⁶⁾.

亡陽病에서 太陽病汗出은 亡陽之初證으로¹⁴⁾ 裏氣의 熱氣가 表氣의 寒氣를 卻하는 것이고¹⁵⁾, 陽明病汗出은 亡陽之中證, 末證으로¹⁴⁾ 裏氣의 熱氣가 表氣으로 外遁함으로써 寒氣가 범하는 것으로¹⁵⁾ 陽氣의 進退強弱에¹⁶⁾ 차이가 있어 險·危으로

나뉘는 것이다¹³⁾.

3. 少陰人·少陽人의 裡病

(1) 少陰人 裡病

(少陰人裡病論)

7) 張仲景所論 太陰病 少陰病 俱是 少陰人 胃氣虛弱 泄瀉之證而

太陰病泄瀉 重證中 平證也 少陰病泄瀉 危證中 險證也

人 但見泄瀉 同是一證而 易於尋常做圖 少陰病泄瀉 尋常做圖則 不免死

皆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8) 少陰病 有身體痛 骨節痛 表證 此則 表裏俱病而 大腸寒氣 必勝胃中溫氣而 上升也

太陰病 無身體痛 骨節痛 表證 此則 裡病表不病而 胃中溫氣 猶勝大腸寒氣而 下降也

9) 醫學綱目 醫鑑所論 水結胸 寒實結胸證藥 俱是少陰人 太陰病而 與張仲景 茵陳蒿湯證 相類則 此病 必非眞結硬於心下而 卽 痞滿於心下者也

張仲景瀉心湯證 傷寒下利 心下痞硬 汗解後 心下痞硬云者 亦 皆痞滿於心下 或 臍上近處結硬也而 非眞結硬於心下者也

10) 陰黃 卽 少陰人病也 當用 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女勞之黃 熱家之黃 利小便之黃 想或非少陰

人病而

余所經驗 未嘗一遇黃疸而治之故 未得仔細
裏許

然 痞滿·黃疸·浮腫 同出一證而 有輕重
若 欲利小便則 乾薑·良薑·陳皮·青皮·香
附子·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荊芥·防風·
羌活·獨活·茯苓·澤瀉 能利少陽人小便

(少陰人汎論)

11) 少陰人病 有六大證

一曰 少陰病 二曰 陽明病 三曰 太陰病 陰
毒證也 四曰 太陽病 厥陰證也 五曰 太陰病
黃疸證也 六曰 太陽病 胃家實證也

12) 少陰人病 10病 :

陽明 少陰 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也

厥陰 陰毒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

太陽 太陰之輕病 不用藥而 亦自愈也

太陽 太陰之尤病 已不可謂輕證而 用藥二三
貼 亦自愈也

太陽 太陰之胃家實 黃疸 正邪壅錮之病 不
可不大用藥也

13) 藏厥與陰盛隔陽 病情 大同小異 俱在極危 如
存一髮 措手難及

若論此病之可治 上策 莫如此證未成之前 早
用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太陰病은 胃중의 溫氣가 大腸의 寒氣를 몰아
下降하는 병이며, 少陰病은 大腸의 寒氣가 胃중의
溫氣를 制壓하여 上升하는 병이다^{7B)}. 그리하여 太
陰病泄瀉는 重證中 平證이 되고, 少陰病泄瀉는 危
證中 險證이 된다⁷⁾.

少陰人 太陰病을 살펴 보면 水結胸, 寒實結胸과

같은 心下痞滿證은 陰實之氣가 胸膈에 걸쳐 있는
것으로 太陰病의 범주에서 張仲景의 瀉心湯의 變
財로 和解시킬 수 있는 것이다^{9,10)}. 그외에 냉기의
聚散輕重에 따라 重證인 太陰病陰毒, 太陰病黃疸
(陰黃)은 少陰人 6大病에 해당된다^{11,12)}.

少陰人 少陰病을 살펴 보면 傷寒陽厥中 臟厥이
나 陰盛格陽과 같이 大腸의 寒氣가 胃의 溫氣를
제압하여 上升한 병으로 危證과 險證이 있다¹³⁾.

(2) 少陽人 裡病

(少陽人裡病論)

14)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而 陋固膠小
所見者 淺 所欲者 速 計策鶻突 意思艱乏則
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生此
病也

胃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頭面四肢則 成上
消病

大腸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胃局則 成中消
病

15) 又宜 寬闊其心 不宜 膠小其心 寬闊則 所欲
必緩 清陽上達 膠小則 所欲必速 清陽下耗

16) 平心靜思則 陽氣上升 輕清而 充足於頭面四
肢也 此 元氣也 清陽也

勞心焦思則 陽氣下陷 重濁而 鬱熱於頭面四
肢也 此 火氣也 耗陽也

17) 癰疽 眼病 皆是中消之變證也

18) 少陽人 大腸清陽 快足於胃 充溢於頭面四肢
則 汗必不出也

19) 上消 中消 裡陽升氣 雖則虛損 表陰降氣 猶持完壯 故其病雖險 猶能歲月支撐 以此也
 若夫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者 表裏陰陽 俱虛損 所以爲病尤險 與下消 略相輕重

少陽人の裡病은 大腸의 淸陽上升의 정도에 따라 병이 구분된다^{14,18)}. 즉 頭面四肢에 陽氣상승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면 火氣가 되어 耗陽하는 병중의 단계(예 : 上消)와 胃局에 陽氣상승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는 병중의 단계(예 : 中消)와 大腸局에 陽氣上升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는 병중의 단계(예 : 下消,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가 있다^{14,18)}. 上消와 中消는 裡陽의 上升에 虛損이 있더라도 表陰降氣가 온전하므로 輕하고,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는 表裏陰陽이 모두 虛損함으로써 下消보다 더욱 重證이 된다¹⁹⁾. 그리고 치료에 있어 寬闊其心, 平心靜思를 강조하였다^{15,16)}. 또한 癰疽, 眼病 등을 中消의 變證으로 설정하였다¹⁷⁾.

IV. 結 論

論者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을 고찰하여 각각의 表病과 裏病의 概要를 살펴보고, 表裏陰陽升降을 중심으로 각 병중을 장부론의 前四海, 後四海, 臟, 腑 등과 연결하여 부위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病理的 轉變過程이 相對가 되는 병중을 상호비교하여 병중의 輕重을 나누고, 그것을 圖解하여 병중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結論을 요약할 수 있다.

1. 肺·脾·肝·腎은 頭腦·背脊·腰脊·膀胱과 같이 表氣를 형성하고, 胃脘·腸胃·小腸·大腸은 頤·膻·臍·腹과 같이 裏氣를 형성한다.

2. 表病은 少陰人에게 있어서 陽氣의 進退強弱에 따른 陽氣의 升降으로 表氣·裏氣를 포괄해서 나타나고, 少陽人에게 있어서 表氣의 陰氣下降으로 表氣·裏氣를 포괄해서 나타난다.

裏病은 少陰人에게 있어서 冷氣의 聚散輕重에 따른 陰氣의 下降으로 裏氣에 나타나고, 少陽人에게 있어서 大腸의 淸陽上升으로 裏氣에 나타난다.

3. 表病에서 살펴 보면,

◆ 少陰人의 腎陽困熱, 下焦血證과 少陽人의 少陽傷風은 表氣(後四海)의 병으로 膀胱에서 升陽作用不利와 背脊에서 陰氣下降不利의 병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 少陰人의 胃家實과 少陽人의 結胸病은 半表氣裏氣病(前四海)로 小腹에서 升陽作用不利와 臍에서 陰氣下降不利의 병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 少陰人의 亡陽病과 少陽人의 亡陰病은 裏氣→表氣, 表氣→裏氣으로 裏氣에서 表氣로 陽氣가 外遁하는 것과 表氣에서 裏氣로 陰氣가 內遁하는 병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 그외 少陰人의 大腸怕寒과 少陽人의 心下結胸은 表氣病으로 裏氣不和한 것으로 前四海部位에서 小腹硬滿과 心下(臍)結胸의 증상이 나타난다.

4. 裏病에서 살펴 보면,

◆ 少陰人의 裏病은 冷氣의 聚散輕重에 따른 裏氣의 陰氣下降을 나타내며 太陰證은 胃중에 溫氣는 유지하나 大腸에 冷氣가 凝聚된 것이고, 少陰病은 大腸의 冷氣가 胃중에 溫氣를 犯하여 太陰證에 비해 병중이 더욱 重하게 되는 것이다.

◆ 少陽人의 裏病은 大腸의 淸陽上升에 따른 裏氣의 陽氣上升을 나타내며 頭面四肢에 陽氣상승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면 火氣가 되어 耗陽하는 병중의 단계(예 : 上消)와 胃局에 陽氣상승으로

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는 병증의 단계(예 : 中消)와 大腸局에 陽氣上升으로 充足하지 못하고 鬱熱되는 병증의 단계(예 : 下消,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가 있다. 上消와 中消는 裡陽의 上升에 虛損이 있더라도 表陰降氣가 온전하므로 輕하고,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는 表裏陰陽이 모두 虛損함으로써 下消보다 더욱 重證이 된다.

參 考 文 獻

1. 尹完重 : 詳教懸吐 東醫壽世保元, 한국, 서울, pp 1-152, 1972.
2. 李乙浩, 洪淳用 : 四象醫學原論, 한국, 서울, 杏林出版, pp 1-311, 1994.
3. 許俊 : 東醫寶鑑, 한국, 서울, 南山堂, pp 378-409, 506-517, 1989.

ABSTRACT

A Study on parts of So-yin-In and So-yang-In

Ju-Eui Lee O.M.D.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2 KOREA

As considering a study of the So-um-In and So-yang-In disease, I know each of Extra-disease (表病) and Intra-disease (裏病). I take serious view of the Extra-Intra-Um-Yang-Up-Down (表裏陰陽升降). I try to join constitutional disease to the parts of human body, which base on the theory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I make some diagrams of them. They c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Extra-qi (表氣) is four-viscera (四臟) and four back parts of human body (後四海). The Intra-qi (裏氣) is four-digestive organs (四腑) and four fore parts of human body (前四海).

2. It is important that Yang-qi (陽氣) go up at So-um-In Extra-disease (少陰人 表病) and Um-qi (陰氣) go down at So-yang-In Extra-disease (少陽人 表病). And It is important that Um-qi (陰氣) go down at So-um-In Intra-disease (少陰人 裏病) and Yang-qi of Large Intestine (大腸局) go up at So-yang-In Intra-disease (少陽人 裏病).

3. Looking into the Extra-disease,

◆ Sin-Yang-Gon-Yiel (腎陽困熱) and Ha-Cho-Chuk-Hyel (下焦蓄血) of So-um-In disease are the disease that Yang-qi don't go up from the buttock. So-Yang-Sang-Pung (少陽傷風) of So-yang-In disease is the disease that Um-qi don't go down from the upper back.

◆ Yui-Ga-Sil (胃家實) of So-um-In disease is the disease that Yang-qi don't go up from the lower abdomen Gyel-Hung (結胸) of So-yang-In disease is the disease that Um-qi don't go down from the thorax.

◆ Mang-Yang (亡陽) of So-um-In disease is the disease that Yang-qi don't go up from Intra-qi so it go out to the Extra-qi. Mang-Um (亡陰) of So-yang-In disease is the disease that Um-qi don't go down from the Extra-qi so it go into the Extra-qi.

◆ Dea-Jang-Pa-Han (大腸怕寒) of So-um-In disease and Sim-Gyel-Hung (心下結胸) of So-yang-In disease are half of Extra-qi and Inrea-qi.

4. Looking into the Intra-disease,

◆ The Intra-disease of So-um-In is Tae-um syptom (太陰證) and So-um syptom (少陰證). The So-um syptom is more severe than Tae-um syptom because a cold wave of Large Intestine (大腸冷氣) involve a warm wave of Stomach (胃局).

◆ The Intra-disease of So-yang-In is not to go up Yang-qi of Large Intestine. Deficit of Yang-qi from Large Intestine which go up at Stamach is more sever than deficit of Yang-qi from Stomach which go up at extremes.